

# 허리띠 졸라매는 한샘... 가구업계, 실적개선·유동성 주목

올해 들어 업계 전반 실적악화 한샘, 사옥매각 검토 등 극복 전망 부분·단기시공 등 서비스 내세워



한샘 서울 상암동 사옥.

가구업계가 보릿고개에 들어간 가운데 업계 1위인 한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가구 회사들이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샘은 올해 3·4분기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4·4분기 예상치까지 포함하면 올해 실적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한샘은 아울러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 상암동과 방배동 사옥 매각도 검토하고 나섰다.

가구업계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침체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1위 기업인 한샘의 실적 부진, 유동성 확보 움직임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샘은 연결기준으로 3분기 매출이

477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358억원보다 10.9% 하락했다. 전방산업인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인테리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효과가 컸다. 실제 3분기 한샘의 홈리모델링 부문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1586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226억원이었던 3분기 영업이익은 올 들어 -13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가구업계의 실적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샘은 현재 서울 방배동과 상암동 사옥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수고가 바로 옆에 위치한 한샘 방배동 사옥은 개발시 적지 않은 차익이 가능한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다.

지하 5층, 지상 22층 규모인 한샘 상암동 사옥은 한샘이 2017년 당시 팬택으로부터 1485억원에 매입한 건물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암동 사옥은 3000억원 중반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배동·상암동 사옥 매각권은 아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관계자는 “검토중인 사옥 매각은 자산 유동화 차원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샘 김진태 대표집행인원은 지난 4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시공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 경험 혁신 ▲운영 효율 극대화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 등 5개 중점 사항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홈리모델링 부

문 매출 2조원을 포함해 전사 매출 규모를 총 4조원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샘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조 2300억원 수준이었다.

현재 열흘 정도 걸리는 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리모델링 5일 시공’도 선보일 계획이다. 마케팅, 고객 상담, 소비자보호 등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내에 CX혁신본부도 신설했다. 아울러 ▲자재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이용한 상담 ▲자재 정가제 ▲전자계약 ▲직(直)시공 ▲품질보증 ▲본사AS 등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무한책임 시스템’ 도입도 예정하고 있다.

내년엔 그동안 따로 운영하던 한샘 물과 한샘닷컴을 통합해 다양한 인테리어·리모델링 콘텐츠를 담은 ‘정보탐색 채널’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한샘은 이외에 부분시공 전문 상품 출시, 공정기간 단축 등 이사를 가지 않고도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부분시공’ 서비스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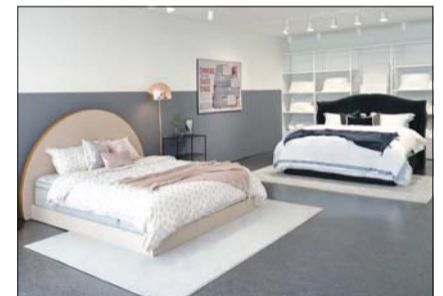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동반성장위원회-스타벅스 상생음료 판매 소상공인 모집

동반성장위원회가 스타벅스와 오는 13일까지 올해 하반기 상생음료를 판매할 개인 소상공인 카페를 공개 모집한다.

8일 동반위에 따르면 ‘상생음료’는 스타벅스 음료 개발팀이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해 신규 개발한 한정판 시즈음료를 말한다. 상생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원부자재와 레시피를 개인 소상공인 카페에 무상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 개인 카페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맨션 포항점

/시몬스

## 시몬스 ‘시몬스 맨션 포항점’ 오픈

시몬스는 경북 포항시 해동동에 ‘시몬스 맨션 포항점’의 문을 열었다.

8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 포항점에는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의 켈몬, 에디슨, 윌리엄, 헨리 등 여러 인기 모델을 슈퍼싱글(SS)부터 퀸(QE), 라지킹(LK), 킹오브킹(KK), 그레이트킹(GK)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비치해 고객이 수면 스타일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 홈쇼핑-농협경제지주 농산물 소비 촉진 맞손

홈쇼핑이 수급불안 품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상생마케팅을 추진한다.

8일 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홈쇼핑은 총 4000만 원을 후원한다. 후원금 전달식은 지난 4일 전북 부안에 있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다. 당일엔 부안농협 자체 라이브커머스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이와 함께 쌀과 감귤 판매는 전국 하나로 직영점·계열사 및 농·축협 협약 마트에서 이뤄진다. 군산과 부안에서 출하된 쌀은 이달 초부터 오는 15일까지 20kg·10kg, 노지 감귤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4kg 단위로 판매하며 단위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LX하우시스, 다시 한명호 체제로... “근본 경쟁력 강화”

〈초대 LG하우시스 대표〉

정기인사 단행... 신규 이사 3명 선임 한사장, 2012년까지 회사 진두지휘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LX하우시스가 초대 LG하우시스 대표와 한화L&C 대표를 각각 역임한 한명호 대표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LX하우시스는 8일 CEO 선임, 상무 승진 1명, 이사 신규 선임 3명, 전입 2명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한명호 사장은 지난 2009년 LG하우시스(현LX하우시스)가 LG화학에서 분할·설립될 때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2년까지 회사 성장을 진두지휘했다. 재임기간 동안 한 사장은 건축용

고성능 PF단열재, 완성창, 고단열 로이 유리 등 신사업 육성을 주도하며 미래 성장 사업들이 현재 LX하우시스의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 인

조대리석 공장 건설, 중국 우시 생산공장 건설 등 글로벌 주요 전략 시장에 현지 생산거점을 마련하며 내수 중심이었던 사업구조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한 사장은 2012년말 LG하우시스 대표를 퇴임한 이후에도 한화L&C와 한라엔컴 대표를 역임하는 등 관련 업계에 꾸준히 몸담으며 시장의 변화 흐름과 통찰력을 유지하는 등 국내 건축자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LX하우시스는 이외에도 이번 인사에서 강창원 이사를 상무로 승진했고 김우홍 책임과 민병기 책임, 최현진 책

임을 각각 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아울러 LX홀딩스 박장수 전무가 LX하우시스 CFO로, LX인터내셔널 진혁 상무가 LX하우시스 경영진단·개선담당으로 각각 올랐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는 격변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며 성과를 창출한 성과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HJIT, 韓-대만-中 신규항로 기항지 선정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연간 2.5만TEU 추가 물동량 유치 전망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이 한국과 대만·중국의 신규항로 서비스를 위한 기항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됐다.

8일 (주)한진에 따르면 HJIT는 이스라엘 최대 화물 해운 선사인 짐(ZIM)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중국간 컨테이너 교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한 신규항로인 KRX svc(Kor

ea Express svc)의 인천항 기항 터미널에 선정됐다.

대만 타이중을 출발해 가오슝, 중국의 서커우와 샤먼을 경유해 부산항과 인천신항으로 이어지는 KRX svc는 이스라엘 ZIM Line의 자회사인 홍콩의 Gold Star Line이 1100TEU급 선박 2척을 투입해 단독 운항한다.

HJIT는 이번 신규항로 서비스 기항으로 연간 약 2만5000TEU의 추가 물동량 유치가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 올해의 중진공인 ‘박양우·이민주·양우연’

리스크준법실 박양우 대리, ESG진단기술택 이민주 대리, 인재경영실 양우연 과장이 ‘올해의 중진공인’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관과 사업 운영 관련 우수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 ‘2022년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의 중진공인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3무(중이無·방문無·보관無)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

한 박양우 대리의 ‘코로나 Off, 정책자금 On(line)! 대출부터 사후관리까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편리한 정책자금 온라인 서비스’가 선정됐다.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한 중기 ESG 지원으로 중기 지속가능 성장 견인’(이민주 대리)과 ‘적극적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 공정 채용 및 사회형평 포용채용 구현’(양우연 과장)이 뽑혔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안심전환대출 4억→6억 첫날, 1864건·3208억 신청 /사진 뉴시스  
▲‘尹 퇴진’ 촛불단체 대표도 “文 풍산개파양, 솔직히 황당”



▲영정 없었던 합동분향소...이상민 “빠른 조문이 더 중요” /사진 뉴시스  
▲“강제복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인권위, 상고 포

▲“왜 돈 따고 잃었다 거짓말해” 듣고 살인미수 50대, 2심도 실형  
▲“간호사 법정정원 위반 ‘숨방망이 처벌’...행정처분 2%”